

파도 속 숨은 글씨 가까이선 보인다

김25 작가 초대전 '필연적 조우'
요동치는 물결에 글귀 새겨넣어
오늘부터 16일까지 나인갤러리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같은 작품일지라도 보는 시각과 위치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김25(KIM25) 작가의 작품이 그렇다.

김25 작가 초대전 '필연적 조우: Meet of each other'가 7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25 작가가 최근 작업한 'Wave Sorry' 회화 시리즈도 감상할 수 있다. 김25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과감한 붓 터치와 텍스트 사용이 더 세밀해졌음에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파도를 형상화한 김25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시원함이 뻗속까지 전해진다. 그렇다고 단순한 파도 그림으로만 오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학이 보인다. 생 텍쥐페리의 '어린왕자', 허먼 멜빌의 '모비딕', 아르투르 랭보의 시 '영원', 메리 올리버의 시 '파도' 등 19세기를 빛낸 문학작품들이다.

김25 작가는 평소 좋아했던 19세기 문학작품 글귀를 작품에 녹여냈다. 문학작품의 구절은 요동치는 파도의 명암이 되고 때론 잔잔한 파도의 물결이 된다. 또 바위에



김25 작가가 자신의 작품 'how do i love the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딪혀 흩어지는 물방울도 글귀가 된다.

이번 신작 'Wave Sorry'는 기존 작품보다 더 거침없고 웅장하다. 평소 김 작가는 회화와 텍스트의 심미적 표현방식에 대한 실험을 거듭해 왔다. 그 중심은 추상화였다. 작가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의 보다 더 쉽고 친숙하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구현했다.

작품 속 텍스트는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 열린 해석과 레이어 효과를 더해 망막에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개인의 성찰을 넘어 자연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반성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특히 자신의 작업을 회화라는 고정된 장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작업 방식 및 매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김25 작가의 신작 시리즈를 대거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초대전은 회화와 텍스트, 재현과 추상 특색의 조우에 깊이 천착해 독특한 시각 언어를 창조해 낸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뜻 깊은 전시로 기대된다.

김허경 미술평론가는 "김25 작가는 선과 색채가 중요한 회화 요소임을 강조함으로써 유동적이고 구불구불한 곡선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통해 선의 자유성과 색채의 해방을 시도했다"며 "화면에 펼쳐진 작가의 창조적인 붓질은 관습적 위계질서를 넘어서 제한된 인간의 사고의 틀과 규칙들에 대항한다"고 평가했다.

강진 출신인 김25 작가는 1987년 홍익대 서양화과, 1991년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4년부터 개인전을 열고 아트 마이애미 등 다양한 단체전에 참가했다. /이나라 기자



김25 작가 초대전 '필연적 조우: Meet of each other'가 7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나인갤러리에서 열린다.

모습 달라도 우린 친구

‘울어버린 빨간 오니’

16·17일 어린이극장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성을 그린 맞춤 공연 ‘울어버린 빨간 오니’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16일·1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 ACC 어린이극장에서 ‘울어버린 빨간 오니’ 공연을 선보인다.

ACC 어린이·청소년 공연 시리즈의 올해 마지막 연극 ‘울어버린 빨간 오니’는 일본 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 ‘울어버린 빨간 도깨비’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공연은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색과 모습



이달과 외면받는 빨간 오니가 친구 파란 오니의 희생을 통해 인간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줄거리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나다움’을 얘기한다.

‘오니(おに)’는 일본의 요괴로

편의상 ‘도깨비’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는 서로 다른 존재다. 본 작품에서는 두렵고 낯선 존재로서 관객들이 ‘오니’를 상상할 수 있게끔 ‘도깨비’로 의역하지 않고, 일본어 그대로 음차해 사용했다.

공연은 전석 1만원이다. 예약과 공연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광주국제교류센터 클라빌레.

/광주문화재단 제공

성악·첼로·바이올린 선율의 어울림

광주문화재단 ‘레인보우 클래식’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여름 월요콘서트 ‘레인보우 클래식’이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무지개 일곱 색깔의 의미와 시대적 흐름의 다채로움을 음악적 감성과 색채로 표현한다. 바로크부터 현대시대의 아름답고 시적인 시대별 가곡들을 접할 수 있는 무대다. 성악가 7인의 목소리와 중후한 첼로, 섬세한 바이올린의 선율이 어우러진 고품격 연주로 흥미가 더해지는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 클라빌레(GIC Clabile)’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산하 음악 단체로, 성악 및 기악, 작곡 등 여러 장르에

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됐다.

뛰어난 실력과 음악가들로 구성된 공연 출연진은 소프라노 박수연·송미나·이찬순·이지연·김진남, 바리톤 김치영, 테너 고규남, 바이올린 양새미, 첼로 진채리, 피아노 김연·김준현, 해설 김명진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2022 월요콘서트는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내고 싶은 만큼의 관람료를 내는 ‘감동후불제’를 도입했으며, 관람료 전액은 공연예술단체에게 지원된다. 월요콘서트는 선착순 100명이며, 공연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관람신청은 전화(빛고을시민문화관 062-670-7926)로 하면 된다.

7월 세 번째 월요콘서트는 1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프리모 클래식’ 공연단체의 ‘오페라 파도라마’라는 주제로 열린다. /최진화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음색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동판 인쇄 / 다양한 기성봉투 / 다품종 소량생산 / 친환경 잉크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ECO 우리의 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지피스텐딩 파우치 / 박스파우치 / 견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컷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